

한우 한마리 키워 팔면 127만원 손해

사료값 등 생산비 급등 가격 하락 지난해 순손실 전년비 212% 증가 젖소는 우유값 올라 순수익 늘어

지난해 국내 한우 농가는 한우를 키워 팔수록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우의 경우 1마리 당 순손실 규모가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고, 비육우(고기 생산 용도의 소)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우 판매가는 하락한 반면, 한우 사료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번식우 순손실은 1마리 당 127만6000원으로 전년(40만9000원) 대비 86만 7000원(212.0%) 증가했다.

지난해 송아지와 한우(암컷) 산지가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사료비는 비싸지고 자가노동 단가가 오르면서 생산비가 급등한 결과다.

지난해 송아지 산지가격은 1마리 당 341만 8000원으로 전년(386만 3000원)에 비해 44만 5000원(1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우(암컷) 산지가격도 16% 하락했다.

반면, 송아지 1마리 당 생산비는 지난해 기준 497만원으로 전년(437만 2000원)보다 59만 8000원(13.7%) 늘었다. 특히 번식용 배합사료(1kg)와 자가 노동단가가 1년 새 각각 2.7%, 3.9% 늘어났다.

지난해 한우 비육우 역시 팔면 팔수록 순손실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 비육우 순손실은 지난해 기준 1마리 당 142만6000원으로 전년(68만9000원)에 견줘 73만7000원(107.0%) 상승했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2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한우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마리 당 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0.2% 하락하는 데 그쳤으나, 판매 가격은 1kg 당 2만980원에서 1만8619원으로

11.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육우 순손실도 1마리 당 202만원으로, 전년 대비 62만4000원(44.7%) 늘었다.

반면 젖소는 지난해 원유 가격이 뛰면서 판매 수익 증가폭이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젖소 1마리당 순수익은 173만1000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20만1000원(13.2%) 증가했다. 지난 2015년(15.9%) 이후 8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젖소 사육비 역시 한우와 마찬가지로 상승했지만, 원유 가격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에 풀이된다.

지난해 젖소를 제외한 국내 한우 농가들의 한우 판매 순손실 규모가 커지는 등 전반적인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돼지와 닭 등 다른 축산물의 순수익도 사육비 증가와 산지가격 감소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육돈 순수익은 1마리 당 5만7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산란계는 7256원에서 4830원으로, 육계는 260원에서 159원으로 각각 60.1%, 33.4%, 38.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돌아온 제비 덕에 환경개선 실감

농약 줄인 친환경 농업 확산으로 농촌 더 건강해지길

새(조류) 중에서 농사와 친밀한 관계를 따지면 단연 제비가 으뜸일 것이다. 제비는 농사와의 관계를 떠나서도 인간과 아주 가까운 조류다. 이 때문인지 우리나라에는 제비와 관련된 속담도 많은데 '강남 갔던 제비가 빨리 돌아오면 풍년 든다'나 '물 찬 제비 같다', '제비집이 허술하면 큰바람이 없다' 등 하나같이 긍정적인 내용이다. 이는 다른 조류와 달리 제비가 인간에 동지를 틀고 살아가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습성 때문일 것인데, 제비는 인간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설화 '홍부전'에서 새끼 제비가 동지에서 떨어지자 홍부가 보호해 준 것처럼 말이다. 제비는 사람이 사는 주변에 동지를 틀면 고양이나 뱀, 구렁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 역시 제비에 대한 인식이 좋아 보호해 주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다.



서 집 밖으로 나서면 그때부터 제비집은 빈집이 된다. 그리고 7~8월경이면 우리 주변에서 더는 제비를 볼 수 없다.

그 많던 제비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제비가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버렸다. 제비들은 집을 짓기 위해 진흙을 퍼오고 인근에서 건조를 맡겨와야 하지만 농사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농업이 비닐하우스 위주의 시설농업으로 바뀌면서 동지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제비의 먹이는 하천과 습지 주변에 사는 하루살이, 잠자리, 벌, 모기 등인데, 광주와 전남이 모두 도시화하면서 하천 등이 사라지게 돼 먹이 부족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사이 우리 곁을 떠나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제비가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 변두리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이따금 들려오고 있는 점이다. 다시 제비가 찾아올 정도로, 살만한 곳으로 주변 환경이 개선됐다는 것일 텐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농업인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지나칠 정도로 눈에 농약을 많이 했지만 요즘 벼농사는 거의 농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친환경적인 농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땅이 비옥해지고 주변 환경이 청정해졌기에 제비가 찾아오는 것 아닐까. 더불어 개구리와 메뚜기, 땅강아지, 도롱뇽까지 복족달 정도로 농촌의 환경이 더 건강해지길 희망해본다.

/bigkim@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현호)는 지난달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사진> 행사에는 이현호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을 비롯해 농협임직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생수와 광산구 선정 답례품인 우리밀 건빵을 나누어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참여를 호소했다.



이현호 본부장은 "올해로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자체가 제시한 특정 기업사업을 기부자가 선택해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지정기부"가 6월 초에 실시되는 등 고향사랑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기부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무안 양파 재배농가 찾아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달 31일 초당대학교와 무안군 삼향읍 양파 재배농가 찾아 영농철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일손돕기 행사에는 박성덕 농협 전남본부 부본부장, 김해중 농협 무안군지부장, 나용석 삼향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협 직원과 초당대학교 재학생 40여명이 참가해, 이른 아침부터 양파 수확 작업을 도왔다. 나용석 조합장은 "양파수확을 맞아 일손이 절실한 시기에 인근 대학생들이 잠시 학업을 멈추고 영



농현장을 찾아주셔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오늘 봉사활동이 농사일이 생소한 대학생들에게 농업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농협은 농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영농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aT, 농축산식품부와 가루쌀 소비 활성화 '가루쌀 빵지순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루쌀 빵지순례'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가루쌀 빵지순례'는 지역 제과명장 빵집인 베이베어를 비롯해 ▲대한민국제과명장 제과점(김영모베이커리·김덕규과자점) ▲제과기

능장 제과점(광풍프레·바누아과자점 등) ▲지역 빵집 명소(성심당·이성당 등) ▲호텔 베이커리(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그랜드 하얏트 서울 등) 등 전국 32개 사, 91개 매장이 참여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엔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 | | | | | |
|------------------------|------------------------|--------------------------|------------------------------|--------------------------------|
| 용 산 지 점 062)526-0222~3 | 유 동 지 점 062)512-1984~5 | 유 덕 지 점 062)373-3235~6 |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치 평 지 점 062)381-8212~3 | 동 립 지 점 062)513-8521~3 | 동 운 지 점 062)528-2640~2 |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
| 쌍 촌 지 점 062)381-6551~2 | 운 암 지 점 062)527-3295~6 | 배 들 지 점 062)381-1971~2 |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 유 덕 하나로마트 062)373-3235 |
| 화 정 지 점 062)372-0421~3 | 운 천 지 점 062)371-2772~3 |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